

새정치 2·8 전대 컷오프 D-1... 지역 당권주자 박지원·박주선 의원에 듣는다

“DJ정신 토대 중도 정당 만들것” “계파에서 자유로운 정당 건립”

박지원 의원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책을 제시한다며.
▲공천제도와 당무를 우선 혁신하겠다. 영남·강원 등 취약 지역에 비례대표 2석, 광역·기초의원에 각기 1석의 비례대표를 보장하겠다. 여기에 중앙당의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시도당에 공천권을 대거 이양하겠다. 국고 보조금을 시·도당에 대거 지원, 풀 뿌리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 혁신안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혁신과 변화의 경쟁에서 압도할 자신이 있다.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보는가.
▲지역구도로 풀라는 것이 아니다. 자존심을 살린 민주주의, 서민 경제 회복, 복지 강화, 남북 관계 개선 등을 통해 나라의 방향을 바로 가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한, 뒤져진 호남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라. 호남 정치인들이 과감한 도전을 통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당 대표 도전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
-당 대표가 된다면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노선과 정체성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당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만들겠다. DJ 정신을 토대로 중도개혁 노선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
-박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다면 ‘호남당’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천제도·당무 혁신에 최우선
호남정치 복원·정권교체 목표
전대 친노-비노 구도 아쉬워

▲새정치연합은 호남이 뿌리다.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지만 호남을 빼놓고도 승리할 수 없다. 전국 1000만의 향우들이 새정치연합을 지켜주고 있다. 뿌리를 튼튼히 하고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호남 당 대표가 필요하다.
-박 후보의 집권 전략은.
▲당원들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국민의 눈 높이를 맞춰 가겠다.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당을 만들겠다. 올해 10만 당원을 정예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에는 20만의 당원을 정예화, 대선 승리의 근간을 조성하겠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정당화를 통해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겠다. 민심속에 살아 숨쉬는 정당을 만들겠다.
-문 후보에 대선 패배 책임론과 차기 대선 불출마 요구가 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좀 그렇다. 차기 대선 불출마 요구도 적절치 않다. 문 의원은 우리 당의 자산이다. 그가 당권 육성을 버리고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문 후보에 비해 당 대표로서의 강점이 있다면.
▲문 후보는 희생과 싸움을 하지 않는다. 늘 뒷자리에 있다.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과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반면, 나는 두 번의 정권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



다. 많은 경험이 있다. 여기에 두 번의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협상과 소통의 능력을 검증 받았다. 자신있다.
-전대가 계파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계파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도 전대는 친노와 비노 구도로 흐르고 있다. 최대의 계파 수장이 그동안 뒤 하다가 대표 도전 나서면서 청산을 주장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조건부 총선 불출마도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부산의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든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친노 진영은 거의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알았다. 끌어안기보다 배제했다. 친노의 패색성이 대선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다. 반면, 당시 박근혜 후보는 버렸던 김무성을 껴안고 한화갑, 한광욱 등 정적도 포용하는 절실함으로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조그만 자세의 차이가 대선 패배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것이다. 각성해야 할 부분이다.
-지역민께 드릴 말씀은.
▲아무런 사심이 없다. 목표는 정권 교체 단 하나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새정치연합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불사르고 사라지겠다. 감히 지지를 호소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주선 의원

-당대표 경선 출마 동기는.
▲당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다. 바꾸고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 지지·신뢰를 받지 못한다. 저는 계파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심 없는, 소신·강단·추진력 있는 사람이다.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호남정치 위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가 관점에서 호남인사 소외와 지역 낙후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의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당 입장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인의 피·눈물·땀으로 만든 당이다. 그런데 호남 출신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
-해소책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부당한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정당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호남 낙후·소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당의 지도부에 입성,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당은 호남을 받아 또는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당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계파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으며 공천이 잘못되고 민주적 운영도 안 되고 있다. 공천을 할 때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달라 예측가능성이 없다. 또 현재 당은 구호·주장에 그치고 행동과 실천이 없다. 성과와 결과, 책임도 없다.

‘빅2’는 당 분열·갈등만 조장
개혁·실용주의 정당 바꿀것
국민공감·감동있는 전대 주력

-당 혁신방향은.
▲당 의식·체질·제도·관행을 혁파해서 정말로 변화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다. 우선, 계파를 청산, 갈등·분열을 치유하고 융합·통합으로 하나 된 정당을 만들겠다. 또 교조적·급진적 진보보다는 중도·합리·개혁·실용주의 정당으로 바뀌 외연을 넓혀겠다. 나아가 원칙과 기본을 세우고 당원 중심 정당,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
-현재까지 판세는.
▲당내에서는 이른바 ‘빅2’로는 혁신이 곤란하고 계파정치를 강화해 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간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출마 포기를 주장한 30여명을 비롯,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를 지지한 40~50여명, ‘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 20여명 등 대다수 의원이 ‘빅2’에 거부감이 있다. 중북되기도 하고 정부 제표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애당심과 총정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 ‘빅2’는 근거 없는 얘기다. 당을 망친 의미로 ‘F(Failure)’2다.
-문재인 의원의 출마를 심하게 반대한 이유는.
▲문 의원은 대표가 돼서 인사·공천권에는 관심이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했다고 한다. 당권을 바탕으로 대권으로 가는 독주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면 계파가 더욱 강화된다. 계파에 의한, 계파를 위한, 계파의 당대표가 되



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정한 경선이 보장 안 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대선후보 출현을 막는다. 1997년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총재직을 계속해 2002년 다시 후보가 됐으나 또 패배한 일을 교훈 삼아야 한다.
-박지원 의원 출마도 반대했는데.
▲2012년 대선 패배 후 평가보고서는 문재인·박지원 의원을 패배의 핵심책임자로 지목했다. 평가위원회는 나아가 향후 당 발전을 위해 5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첫째가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핵심책임자는 당권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둘 다 7·30재보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을 했는데 이전과 이후 당이 달라진 게 없다. 그분들의 현 공약사항은 비대위에 있을 때 실천해야 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중앙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다. 중앙위원들은 작은 의리에 집착하지 않고 집권이라는 대의 명분에 동조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대선후보를 하고 당의장을 한 분이 신당에 참여하려 하겠느냐. 계파 갈등과 분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국민 공감과 감동이 없는 전당대회가 되면 신당 창당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1636 결과 **민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眞서안영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주)콜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경축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당」 4대 실천강령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